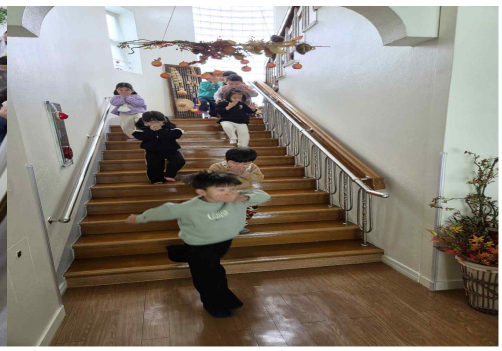
2026년 11월 소방대피훈련 일지

담당	시설장

일 시	2026년 11월 25일 월요일		
대 상	전체 원아, 교직원 일동		
목 표	· 과부하로 인한 화재를 이해한다. · 화재 사이렌 (비상벨)이 울리면 신속하게 대피한다. · 과열로 인한 화재 시 대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실천한다.		
발화점	교사실 글루건	집결지	1층 홀
목표대피시간	55초	실제대피시간	59초
대피인원	출석원아 60명 + 보육교직원 11명		
대피경로	-3층 열매반 2층 잎새반 풀잎반 원아와 교사→내부 계단을 이용해 1층 홀로 대피 -1층 줄기반 새싹반 햇살반 씨앗반 원아와 교사, 요리실 교사 → 현관을 통해 1층 홀로 대피		
활동내용 및 활동사진	  1. 화재 사이렌(비상벨)을 울린다. 2. 교사는 큰 목소리로 “불이야!” 하고 외치며 화재 상황을 알린다. 3. 영유아는 하던 일을 멈추고 대피요령에 맞추어 대피 경로를 따라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한다. 4. 교사는 어린 연령부터 대피 경로를 통해 교사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오도록 하며 유아들을 잘 살피며 마지막까지 대피를 하였는지 확인한다. 5. 상황 종료 후 대피 시 주의사항을 안내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소방대피훈련 했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한다.		
평 가	-교사실에서 글루건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음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에 원아와 교사가 대피하였음. 급격하게 추워진 날씨로 인하여 건물 밖이 아닌 1층 홀로 대피하였음. 대피하는 과정에서 2, 3층의 유아들이 내려오는 계단에서 줄을 맞추어 서서 대피하는 모습을 보여서 대피 속도가 조금 늦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음. 대피 시에는 빠른 속도로 대피해야하기 때문에 계단에서 줄을 서지는 않아도 됨을 이야기 나누었음. 또한 지진대피와는 다르게 소방대피 시에는 신발을 신지 않고 나가야 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모두 안전하게 대피했는지 확인 후 마지막에 “불이야.”를 외쳐보며 불이 난 것에 대해 알리는 연습을 해보았음.		